

SERIES

라-비저트 「SPACE」 18

「SPACE(공간)」는 56년 동안 한국 건축의 현장을 기록한 대표적인 매체다. 커리어 쌓인 기사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건축사가 김현섭, 비평가 박정현, 건축가 서재원, 건축사와 미술사를 아우르는 조현경, 미술사가 신정훈 다섯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이 발굴해낸 이야기가 오늘의 건축 담론을 위한 생산적인 탐험이 되길 기대한다.

1967년 4월호, 건축가 박길룡 특집:
한국 1세대 건축가 연구의 출발점

SPECIAL FEATURE ON ARCHITECT
PARK KILYONG (APRIL 1967):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ING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RCHITECTS

RE-VISIT SPACE 18

SPACE has documented the Korean architectural scene over the past 56 years. To shine a new light on its huge collection of past articles, the architecture historian Hyon-Sob Kim, critic Park Junghyun, architect Suh Jaewon, architecture and art historian Cho Hyunjung, and art historian Shin Chungcheon were invited to conduct a discussion about SPACE's impressive legacy. We hope that the material shared at this meeting will present a productive new genealogy and direction to today's architectural debates.



글
김현섭
고려대학교 교수

진행
김정은 편집장

김현섭은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박사 및 박사후과정으로 유럽 근대건축을 연구했고, 2008년부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건축 역사가이자 비평가로서 한국 현대건축에 관한 비판적 역사 서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건축수업: 시양 근대건축사』(공저, 2016), 『건축을 사유하다: 건축이론 입문』(역서, 2017), 'DDP Controversy and the Dilemma of H-Sang Seung's "Landscape"' (2018), 'The Hanok Paradox: Modernity and Myth in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2019)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을 국내외에서 출판했다.

「SPACE(공간)」 창간호(1966년 11월호)의 '편집후기'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쉽지 못한 몇몇 기사를 거론한다. 창간호에 수반되는 지면 부족이나 예기치 못했던 원고 미비 등이 이유였다. 그 가운데는 '林吉龍氏 푸로필도 있었다.' 한국 1세대 건축가의 대표자인 바로 그 박길룡(1898~1943) 아니겠나. 우리가 잘 알듯 그는 일제강점기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서 공부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으며, 1932년 '박길룡건축사무소'를 개소해 종로의 화신백화점(1937)을 비롯한 다수의 근대식 건물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재래주택 개선과 온돌개량에 앞장섰고, 각종 사회계몽 활동에 열심이었으며, 당시 조선인 건축가들을 두루 품어낸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 박길룡을 「SPACE」가 첫 호부터 소개하려 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선배 건축가로부터의 계보를 확인함으로써만이 후배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까닭이다. 돌아켜보건대 그의 기사가 미뤄진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박길룡과 같은 인물에 대한 기사를 간단한 프로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지 않나. 비록 '건축가 특집'으로서는 「SPACE」 5호(1967년 3월호)의 김중엽에게 첫 순서를 내주고 말았지만 말이다. 한 달 후인 1967년 4월, 「SPACE」 6호는 박길룡을 특집으로 다룬다. '건축가 박길룡: 24주기를 맞이하여'라는 제목 아래였다. 스물 네 해 전 같은 달 세상을 떠난 그를 기린다는 의미를 부가했던 것이다.

written by
Hyon-Sob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edited by
Kim Jeoungun

Hyon-Sob Kim, an architectural historian and critic, has worked as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since 2008, following his doctoral and post-doctoral research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in the UK. He is now interested in writing a critical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Architecture Class: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the West* (co-authored, 2016), a Korean translation of *Building Ideas* by J. Hale (2017), 'DDP Controversy and the Dilemma of H-Sang Seung's "Landscape"' (2018) and 'The Hanok Paradox: Modernity and Myth in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2019).



(112쪽) 「SPACE」 6호(1967년 4월호)의 표지
(p. 112) The cover of SPACE No. 6 (Apr. 1985)

특집 '건축가 박길룡: 24주기를 맞이하여의
시작 페이지, 「SPACE」 6호, 6쪽.
The first page of 'Architect Park Kilyong:
Commemorating the 24th Anniversary of His Death',
SPACE No. 6, p. 6.

SERIES

이 특집 색션은 목차와 임용식의 '공간' 사진에 끈이 매치된다. 한 면을 가득 채운 박길룡의 프로필 사진과 아들 박용구가 24년 전 썼던 에도사가 오르닝이라든, 네 쪽에 걸친 작품 사진에 이은 윤일주의 글 '건축가와 사회: 박길룡 씨의 생애와 업적이 뜻하는 것은 특집의 총론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박길룡의 지인 10인의 '추상록(追想錄)'이 뒤따르고, 그의 약력과 함께 '저서 및 유고목록'이 정리됐다. 그리고는 '유고목록' 중의 글 세 편이 부록처럼 덧붙여진다. '소액수입자 주택 시안(한식)'(미발표), '조선주택집감(발표)',⁷ '신시가지 주거지역 주거건축 경향에 대하여'(미발표) 순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다. 박길룡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서 곧바로(1943년 5월호) '추도기(追悼記)'를 냈다는 사실이다. 그의 사진, 약력, 작품 사진과 함께 10인의 글을 게재했던 것이다. 「SPACE」는 이를 참조하며 박길룡 특집의 형식과 내용을 진전시켰다고 생각되는데(전술한 박용구의 글은 「조선과 건축」에 낸 추도기를 번역한 것이고 윤일주도 이 잡지의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그사반세기 사이 박길룡이라는 기록을 조명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에게 그럴 여력은 없었나 보다. 총론을 담당한 윤일주마저도 그에 대해 '건축계의 대신배, 화신백화점의 설계자란 것 이외에 별로 아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SPACE」 측이 사전 조사한 자료로 말미암아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작품별 화보에 더해 '작가론'과 '작품론'까지 담았던, 한 달 전의 김종업 특집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런 어수름은 「SPACE」6호의 박길룡 특집을 더욱 값지게 한다. 여기서부터 박길룡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시작했고, 한국 1세대 건축가에 대한 연구가 싹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은 여러 불비한 면에도 불구하고⁸ 그와 함께했던 이들의 육성을 들려주고, 그의 건축관을 담은 글의 샘플을 보여주며, 그의 역사적 위치를 시론적(試論的)으로 말해준다. 먼저 윤일주의 글을 보자. 그는 글의 제목에 보였듯, 서두에서 '건축가와 사회'의 관계를 논하며 "1920~30년대의 사회적 양상을 कै어 그의 건축사상의 위치를 부각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결국 관심은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박길룡이 과연 얼마나 '민족적

정지를 지켰고 이를 건축적으로 나타냈는가에 있었던 것이다. 윤일주는 당초 그에게서 발견될지 모를 '친일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가졌지만, 그가 "한국인으로서 뚜렷한 입장과 주장"을 가졌음을 확인했다며 안도한다. 한국주택에 대한 통찰과 개량을 위한 노력, 한국어가 혼용된 잡지 「건축조선(建築朝鮮)」의 발행, 당시 활용성이 불분명했던 한국어 건축용어집의 집필 등이 근거였다. 「조선과 건축」 추도기에서 박길룡과 박용구만이 창세기평 하지 않은 이름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강조된다.⁹ 그의 건축관과 관련해서도, 제레주택 개선을 위해 따르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일본식도 있었음에 방점을 찍었다. 박길룡이 졸업을 앞두고 경성공업전문학교의 조선인 학생 다수가 참여했던 3.1운동에 무관했던 이력이나 일제 말의 경력에 내재한 '식민지 시대의 테크노크라트가 당한 한계와 모순'에 대해 근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¹⁰ 아직은 이게 그리 쉽게 거론할 문제는 아니었던 듯싶다.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1차 서사 자체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까닭도 있었으리라. 아마도 윤일주가 박길룡의 글과 작품에서 발견해낸 '기능주의' 및 '모더니티'의 가능성이야말로¹¹ 이후의 서사를 위한 발판일 것이다. 하지만 박길룡의 건축 이력이 큰 의의와 더불어 시대적 한계를 가졌듯 윤일주의 서사도 그랬던 것 같다. 그가 '건축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가졌던 놀랄 만큼 명징했던 개념이 박길룡을 논하며 다소 둔탁해졌으니 말이다. 건축가가 사회적 조건을 '얼마나 멀리 벗어나서 그의 진위성을 발휘'하고 "당대 예술에 얼마나 투철하게 반영"했는지가 그가 서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었다.

한편, 10인의 추상록은 박길룡의 보스 기질과 폭넓은 인맥, 일본인들에게까지 존경받은 품성, 사무소에서의 일상 등을 다면적으로 전해준다. 그중 김한섭의 글은 윤일주의 글 못지않게 총론적이다. 박길룡 건축사무소의 마지막 구성원으로서 그의 밑에서 13개월 근무했던 경험 이 바탕이었다. 김한섭의 업무는 박길룡의 설계 및 연구에 대한 보조로 대별됐는데, 그가 박길룡의 주택연구에 시기 구분을 시도한 점이 뜻깊다. 박길룡이 초년에는 '민가연구', 중년에는 '제레주택의 개량', 만년에는 '소주택(시민주택)의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소주택에 대한 관심은 사실 박길룡의 초기 출판물부터 이미 표출됐지만,¹² 김한섭의 큰 그림에서는 지엄적인 사안일지

모른다. 그는 박길룡이 국제건축 양식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적 지역적 건축양식을 추구'함으로써 후진들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로까지 나아갔다. 또한 그의 글에서는 박길룡이 안암동의 '집장사 집'을 비판한 일화라든가, 대량생산 프리페브리케이션을 강조하며 1935년 즈음 4척의 모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눈에 띈다. 전자는 현재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른바 '도시형 한옥'에 대한 박길룡의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후자는 박길룡이 『제레식 주거개선에 대하여』(1편, 1933) 등에서 주장한 8척 기준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한섭의 글 이외에도, 박길룡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김해립이나, 화신백화점 내부의 "기형적이고 모순된 부분"을 지적한 전장일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더욱 빠트릴 수 없는 게 박길룡건축사무소 건물들 공평등에 신축했던 일에 대한 최광필의 회고다. 그에 따르면 원래의 사무소는 관훈동에 있는 목조건물 2층의 10평 공간을 사용했지만, 점차 공간이 협소해져 3년여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공평등에 건물을 짓게 됐다는 것이다. 신축건물은 1층이 살림집, 2층이 사무실로 구성됐는데, 직원 집무실이 15평이고, 박길룡 전용실은 5~6평에 응접세트까지 구비했다. 박길룡이 처음부터 공평등에 사무소를 냈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글은 그에 대한 보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간사육을 건축하고 자신의 공간을 가졌던 김수근의 경우를 떠올리게도 한다.¹³ 각 세대의 대표자인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여러 인사들을 이끌며 왕성히 활동했던 점이 유사한데, 심지어는 그들의 사회와의 관계성이 현재적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는 점도 그렇다.

끝으로, 특집에 포함된 유고에 대해 논하자. 박길룡 연구가 일정 부분 진척된 오늘에도 그 세 편이 출판된 것은 의미 있다.¹⁴ 미발표 원고들을 선보인 것 때문만은 아니다. 「SPACE」 편집팀이 어떤 기준으로 이 셋을 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름의 내적 논리가 흐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들을 읽어보면 그의 절충주의적 입장과 기능주의적 입장 사이의 모순이 종종 발견되는 한편으로, 그의 건축관(주택관)이 종합적으로 파악된다. '소액수입자 주택 시안(한식)'이 김중식 평면, 층복도, 지하실, 온돌 아궁이, 8척의 칸(間) 단위 등을 바탕으로¹⁵ 소규모 주택을 제안하는 각론이라면, '조선주택집감'은

당시의 조선주택을 비판하며 '주택개선의 근본이념'을 괴뢰하는 일반론이다. 그리고 '신시가지 주거지역 주거건축 경향에 대하여'는 개별 주택의 범위를 넘어선 도시계획적 차원의 주택론인데, 이윤만을 추구한 신시가지(돈암, 안암, 신설)의 건축 경향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가 영국의 전원도시를 준거로 평하는 점도 흥미롭다. 이렇게 볼 때 박길룡의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것 못지않게 앞으로도 연구할 것이 많이 보인다. 「SPACE」가 게재한 그의 작품 사진에서든, 글 목록에서든 명쾌한 해방을 요하는 일들이 아직 다수 아닌가.

다음 호에는 서재원이 「SPACE」56호(1971년 7월호)에 게재된 공업론건축연구소의 OH제 택을 다룬다.

「SPACE」654호(2022년 5월호)에 게재된 "한국 건축에서 '일본'이라는 문제" 본문(124쪽)에서 '요시자카 타카마사카' '요시무라 준조'도 잘못 기술되어 정정한다.

1 「SPACE(공간)」, 650호(2022년 1월호) '라비지트「SPACE」' 13 참고.
 2 이 글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1941년 4월호)에 출판된 것이지만 친필 원고(1941.3.21) 자체를 중요시해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건축」의 일본어 출판본과 「SPACE」의 한국어 출판본 사이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전자의 후반부 여러 문장이 후자에서 빠진 점이 두드러진다.
 3 대략이나마 '저서 및 유고목록'이 실린 것까 달리 '건축작품 목록'이 아예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다소 의의적으로 보이는 열 명의 작품 사진이 이를 대신하기도 어렵다.
 4 그러나 유상하(劉相夏)의 글 역시 한국식 이름으로 나갔다. 한편,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이어 받은 김세연이 「조선과 건축」 같은 호에 곧바로 광고를 냈는데, 창씨된 이름 '金海廉'이 쓰였다.
 5 함성호, '연대하는 건축 - 건축의 사회적 실천과 건축가', 「건축평단」, 6호(2016.6), 50-63쪽. 그리고 보니 「조선과 건축」의 추도기에서 가사이 시게오(高西重男)는 박길룡을 '내선일제의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6 그는 박길룡의 '조선주택집감'에서 (특히) "... 기성관념에 포획되어 있어, 생활 자체가 짜내는 새로운 방향에서 재발족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기능주의를, 그리고 '경의전(수도육군병원)' 등의 디자인에서 모더니티를 본다. 그런데 근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로 거듭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의 설계자'가 박길룡이었는데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7 초기의 예로 '우리 주거개량에 대한 나의 고찰 (24)-(25)「조선일보」, 1926.11.9. -10), '개량 소주택의 일안「조선」, 1928.10) 등 참고.
 8 「SPACE」, 638호(2021년 1월호) '라비지트「SPACE」' 1 참고.
 9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1년 제출된 최순애의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의 작품론과 주택개량론 등에 관해 여러 연구가 진행돼왔다.
 10 글은 시점은 알 수 있으나 이 주택의 기본 개념은 「제레식 주거개선에 대하여」(1편, 1933; 2편, 1937) 등에서 주장한 바와 상통한다.



和信百貨店
銀行빌딩 (現 國民銀行 南大門支店)



「SPACE」6호, 8쪽.
SPACE No. 6, p. 8.

SERIES

The 'Editorial Postscript' in the first issue of *SPACE* (Nov. 1966) addresses a number of articles that were not published, but which were originally planned for publication. It was due to a lack of space and the unexpected incomplete state of some of the manuscripts. Among them was a 'Profile of Mr. Park Kilyong'.⁷¹ He must be the man we know of: Park Kilyong (1898 - 1943),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rchitects. As is now well known, he studied architecture at Gyeongseong Technical Colle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orked at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opened 'Park Kilyong Architectural Office' in 1932, and designed diverse modern buildings, including the famous Hwasin Department Store (1937) in Jongno, Seoul. More than this, he took the lead in improving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the floor heating *ondol*, remained enthusiastic about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nurtured many Korean architects at that time. It was natural for *SPACE* to introduce this breed of man, Park Kilyong, in the first issue. That is because, by tracing the genealogies of senior architects, the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would be able to scrutinise their current position and set new coordinates for the future. Looking back at this time, it was rather fortunate that his article was postponed. It would not have been appropriate to cover a person like Park Kilyong with merely a simple profile although the honour to be selected for the first 'Architect Special Feature' was given to Kim Chung-up in *SPACE* No. 5 (Mar. 1967). Park Kilyong was covered, a month later than Kim Chung-up, in *SPACE* No. 6 (Apr. 1967). It was entitled 'Architect Park Kilyong: Commemorating the 24th Anniversary of His Death'. This issue had the added significance of commemorating a profoundly influential figure who passed away in the same month 24 years ago.

The section of this special feature is placed immediately after the table of contents and Limb Eung Sik's 'Space' photo. The

profile photo of Park Kilyong, covering the entire page, along with the next page's lament written by his son Park Yonggu 24 years ago, serves as its opening, which is followed by four pages illustrating his designed buildings. It is Yoon Iljoo's text in the next, entitled 'Architect and Society: The Meaning of Life and Achievements of Mr. Park Kilyong', which can be viewed as the main article of this special feature. This was followed by 'Memoirs' written by ten acquaintances of Park Kilyong, and 'List of Books and Posthumous Writings' compiled alongside his biographical profile. Subsequently, three articles from the 'Posthumous Writings' were added like appendices. They are: 'A House Design for Low-Income Families (Korean Style)' (unpublished), 'Miscellaneous Observations on Chosun Houses' (published),⁷² and 'Regarding the Trend of Building Houses in New Residential Districts' (unpublished). There is one thing we should remember here: right after Park Kilyong passed away, *Chosun and Architecture*, the Japanese architectural magazine published in Korea at that time, lamented his death with 'Condolatory Writings' in the issue of May 1943. Along with his photo, biographical profile, and illustrations of his designed buildings, the magazine published condolatory addresses by ten contributors. It seems that *SPACE* would have referred to this to develop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ir special feature on Park Kilyong (the aforementioned lament by Park Yonggu i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Japanese writing from *Chosun and Architecture*, and Yoon Iljoo also actively draws information from this magazine). Here, by chance, we come to realise that there have not been any works that highlight this important figure Park Kilyong over a quarter of a century. Perhaps we could not afford to do so, after living through the turbulent years of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Even Yoon Iljoo, who was in charge of the main article, confessed that he 'had known almost nothing' about Park Kilyong 'other

than recognising his role as a great senior in the architectural world and the designer of the Hwasin Department Store', and added that he was able to write about him by virtue of the materials that *SPACE* had collected when conducting preliminary research. This context contrasts with the special feature on Kim Chung-up a month ago, which even included much more active reviews entitled 'Artist Kim Chung-up' and 'On Kim Chung-up's Works', in addition to more abundant illustrations for each architectural work.

However, such a regret renders the special feature on Park Kilyong in *SPACE* No. 6 even more compelling and necessary. This was the starting point for collating materials on Park Kilyong, and it could be suggested that research o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rchitects started from here. Despite several imperfections,⁷³ this special feature allows us to register the voices of those who worked beside him, shows samples of writings that encompass his architectural concept, and offers general commentaries on his position in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Let's first take a look at Yoon Iljoo's article. As its title suggests, h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 and society' from the beginning, revealing his intention to 'examine the social aspects of the 1920s and 1930s to highlight his position in architectural history'. His interest, in the end, lay with how much Park Kilyong maintained a 'national pride' and expressed it architecturally, in the midst of social conditions behind the Japanese colonial era. Yoon Iljoo was initially concerned about the 'pro-Japanese elements' that might be discovered in him, but relieved to assure that he had 'a clear position and claim as a Korean'. This was based on his insights and efforts to improve traditional Korean houses, his publication of the Japanese-Korean magazine entitled *Architecture Chosun*, and the writing of a Korean architectural glossary whose usage was unclear at that time. He also stressed

that, in the aforementioned issue of *Chosun and Architecture*, only Park Kilyong and Park Yonggu appeared under names which were not changed to Japanese styles.⁷⁴ Regarding Park's architectural concept, Yoon highlighted his argument that the Japanese house style should also be avoided to improve traditional Korean houses. There has been a recent rise in criticism of Park Kilyong, that is, criticism of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technocrat in the colonial era', implied in his personal history: right before his college graduation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March 1st Movement in which many Korean students at Gyeongseong Technical College participated, and this coupled with his work experienc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sation.⁷⁵ Yet in the 1960s, these do not seem like the problems to be addressed so easily. Also, the first narrative of Park Kilyong, which would be the subject of such criticism, had not yet been established. Perhaps the potentials of 'functionalism' and 'modernity' in the writings and works of Park Kilyong, which were discovered by Yoon Iljoo,⁷⁶ are a stepping-stone to the forthcoming narrative of Park Kilyong. However, just as Park Kilyong's career retains the limitations of the times as well as having great significance, so too does Yoon Iljoo's narrative. His surprisingly clear rea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tect and society' was rendered somewhat dull when discussing Park Kilyong. The criteria of evaluation that he presented at the outset were 'how far the architect exhibited an avant-gardism going over social conditions' and 'how thoroughly he reflected this in contemporary art'.

Meanwhile, the ten memoirs convey Park Kilyong's tendency to lead, wide network, personality respected even by the Japanese, and daily life at the office, in a multifaceted manner. Among them, Kim Hansup's memoir is as comprehensive as Yoon Iljoo's main article. It was based on his experience of working under Park Kilyong for 13 months as the last member



上·下 北壇莊

以文堂(現 新民主黨 黨舍)



「SPACE」6호, 9쪽.
SPACE No. 6, p. 9.

SERIES

of Park Kilyong Architectural Office. Kim Hansup, who had assisted Park Kilyong's design and research during the time, tried periodisation of Park Kilyong's research on houses. According to him, Park was immersed in 'surveying traditional houses' in his early years, 'improving traditional houses' in his middle age, and 'researching small-scale houses (low-income houses)' in his later years. In fact, Park's interest in small-scale houses was already expressed in his early publications,⁷ but it may be a minor issue for Kim Hansup's big picture. Furthermore, he even went on to remark that Park Kilyong suggested a path for the younger generation by 'pursuing national and regional architectural styles while emphasising rationality and purposefulness' in the midst of a global trend for a more international architectural style. Also, his writing includes some noteworthy stories, such as: Park Kilyong criticised the 'developer's housing' in Anam-dong; and he proposed a four-cheok-module around 1935 to promote prefabrication for the mass production of housing. The former reveals Park's critical stance on the so-called 'urban-type hanok,' which we prize highly today, and the latter reveals Kim's possible misunderstanding over the idea because Park asserted the eight-cheok standard in his *On the Improvement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Vol. 1, 1933) and others. Aside from Kim Hansup, it is also worth paying attention to Kim Haerim who wrote that Park Kilyong had possessed a profound interest in Frank Lloyd Wright, as well as Jeon Changil who pointed out 'irrational and contradictory part' inside the Hwashin Department Store. The much more indispensable memoir is the recollections of Choi Kwangpil: he describes how the Park Kilyong Architectural Office building in Gongpyeong-dong was built. According to him, the original office occupied a space of ten-pyeong on the second floor of a wooden building in Gwanhun-dong, but the space gradually became insufficient, and so after three years, the new building

was built in Gongpyeong-dong by virtue of the help by acquaintances. The new building consisted of living space on the first floor and an office on the second floor with an employee office space of fifteen-pyeong, as well as an exclusive room of five-to-six-pyeong for Park Kilyong with a reception area. Because it is sometimes mentioned that Park Kilyong opened an office in Gongpyeong-dong from the beginning, this writing serves as a correction to that. Furthermore, it reminds us of Kim Swoo Geun, who had his own space after erecting the Space Group of Korea Building.⁸ These two architects, representatives of each generation, are similar in that they both led various persons into their own spaces and actively interacted with them, even in the fact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society is at times criticised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Lastly, let's discuss the posthumous articles included in the special feature. The publication of these three pieces is meaningful today, even when research on Park Kilyong has progressed to some extent.⁹ It is not only because the two unpublished manuscripts were introduced, but also because, although the *SPACE* editorial team's reasons for selecting these three were not stated, there seems to be an internal logic in the selection. When these articles are placed together, the contradiction between his eclectic and functionalistic stances is often found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is architectural concept (concept on houses) can also be identified comprehensively. If 'A House Design for Low-Income Families (Korean Style)' shows us his specific theory for proposing a small-scale house based on a centralised floor plan, middle corridor, basement *ondol* system, and 8-cheok column-to-column unit,¹⁰ 'Miscellaneous Observations on Chosun Houses' manifests his general theory that expresses the 'fundamental idea of improving houses', criticising Korean houses at that time. In addition, 'Regarding the Trend of Building

Houses in New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seen as a housing theory on an urban planning scale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individual houses, and it criticises the architectural trends in new residential districts (Donam, Anam, Sinseol) that only seek profit. An interesting thing to note in this article is that he describes the English Garden City as a new standard.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re is much more to research Park Kilyong's architecture in the future, as much as what has been studied so far. Whether in the illustrations of his buildings or in the list of his writings published by *SPACE*, are further explorations not always welcome?

In our next issue Suh Jaewon will cover the Residence for OH by Kong Illkon which featured in *SPACE* No. 56 (July 1971).

We would like to address the following correction from the text (p. 124) of the article "The Issue of 'Japan' for Korean Architecture", which appeared in *SPACE* No. 654 (May 2022): The name 'Yoshizaka Takamasa' was misdescribed as 'Yoshimura Junzo'.

- 1 See 'Re-visit SPACE' 13 in *SPACE*, No. 650 (Jan. 2022).
- 2 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Chosun and Architecture* (Apr. 1941), but it seems to have been included here because of its significance as a handwritten manuscript (21 Mar. 1941). There are major and minor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ese version published in *Chosun and Architecture* and the Korean version published in *SPACE*. Most notable is the fact that many sentences in the last paragraphs of the former are omitted in the latter.
- 3 For example, there is no list of his designed buildings in this special feature while the 'List of Books and Posthumous Writings' was included. The omission of the building list is hardly covered by the rather arbitrarily selected ten photographs of his buildings in the illustration pages.
- 4 However, the writing of Yoo Sangha also appeared under his Korean name. Meanwhile, Kim Seyeon who succeeded Park Kilyong Architectural Office immediately placed an advertisement in the same issue of *Chosun and Architecture*, in which he used his Japanese-style name Hamm Seongho, 'Architecture in Solidarity -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s,' *Architectural Critics Association*, No. 6 (Jun. 2016), pp. 50-63. Come to think of it, Kasai Shigeo even described Park Kilyong as 'a person of Naeseonliche (Japan and Korea Are One)' in his condolatory address published in the issue of *Chosun and Architecture*.
- 6 He identifies functionalism in Park Kilyong's 'Miscellaneous Observations on Chosun Houses' (especially from the sentence stating 'without being captured by existing notions, we should start again towards a new direction that life itself expresses' and modernity in some designs such as 'Gyeongseong Medical School Hospital (Military Hospital in the Capit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Park Kilyong was the designer of the Gyeongseong Medical School Hospital, which was recently reborn as part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 7 See early examples including 'Reflections on Improving Our Houses (24) - (25)' (*Chosun Ilbo*, 9-10 Nov. 1926); 'One Exemplary Design for An Improved Small-Scale House' (*Chosun*, Oct. 1928).
- 8 See 'Re-visit SPACE' 1 in *SPACE*, No. 638 (Jan. 2021).
- 9 Fuller research on him can be considered to have started with Choi Soonah's master's thesis submitted to Hongik University in 1981, entitled *A Study of the life and architecture of Park Kill Rong*. Variou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his architecture and his house-improvement theory.
- 10 Although it is unknown when Park wrote this article, the basic concept behind this house is consistent with what was argued in *On the Improvement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Vol. 1, 1933; Vol. 2, 1937).



「SPACE」6호 바로가기
See the *SPACE* No. 6



誠信女高
서울女商

同德女高



「SPACE」6호, 10쪽.
SPACE No. 6, p. 10.